

교회 3대 목표

- 1. 천국일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전도서 12
장 1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 신문사 소석관 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54-1615

“정욕과 죄악에 물든맘 성령의 불길로 태우소서”

시온성대행진 출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충현교회 교회사에 영원히 기록될 「시온성대행진」이 6월6일 오전5시 본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새벽기도회에는 4,035명의 성도가 참석하여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시작되었다.

이종윤 위임목사는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시온성대행진의 첫시간을 온전하게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게 됨을 감사하다.”고 개회사를 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자 한사람, 한사람 어찌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함고 보호해 주시네.”(찬송 170장)

이 모임에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충만케 되기를 기원했다.

특별히 2절의 가사를 반복 강조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함소서, 태우소서,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의 간절한 찬송을 되풀이 했다.

기도 중 너무 목이 메워 잠시 기도를 중단할 만큼 주님의 은혜에 감격했으며, 만물의 찌꺼기 같은 저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긍휼과 자비로 용서해 주심을 감사했다.

185명의 연합찬양대의 “진군 나팔을 크게 울려라 주를 위하여”의 찬양은 은혜를 사모하는 온 성도들의 심금을 울렸다.

창세기 12장 4절~9절을 봉독한 후 「순례자 아브라함」이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둘째날(7일) 새벽기도회는 3,263명의 성도가 참석했으며, 창세기 12장 10~20절 본문에 의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새벽기도회 끝난 후 성도들 개인마다 개인기도가 계속되었고, 귀가하는 성도들을 위해



첫째 순례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삶의 모델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처럼 지내야 합니다. 순례자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으며 새로운 것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비전이 있고 인내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힘쓰는 노력이 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갈대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순례자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소유나 성공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가치관의 변화이며 성숙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열혈단신으로 떠났으나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며 창대케 되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시온성대행진 첫째날 현재)

그림그리기, 글짓기대회 유·초·소에서 900여명 참가

시온성대행진 본부는 행사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6월 6일 오전10시30분 본당 및 뜰에서 교회학교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치부 160명, 유년부 285명, 초등부 253명, 그리고 소년부 202명 등 90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시상은 각교회학교별로 11일 주일에 실시

하며, 대상은 주일(11일) 오후7시 본당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 6월6일 실시된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모습



▲ 시온성대행진 참모들.

여 청년부, 대학부 회원들이 찬송으로 귀가길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고 있다.

봉사부에서는 생수와, 인삼차 등으로 따끈한 성도의 교제가 넘치고, 사랑의 차 동승으로 같은 방향의 믿음의 식구들이 불편없이 귀가했다.

첫날 설교요지는 다음과 같다.

신간안내



국판 433쪽 값 5,000원

김창인 원로목사

시편강해설교집 1

본교회 원로 김창인목사의 강해집 제7권인 「시편강해」 설교집이 나왔다.

본 강해집은 31장으로 편집되어 있으며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관계인식, 절대자를 향한 소원의 간구, 죄에 대한 민감성, 범죄한 심령들에 대한 다윗의 연민과 권면, 위로 등이 실려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출판부 발행

지상강단

본문 / 렘 29:11-14

모든 사람이 원하는 항구적 평화와 행복과는 달리 인류역사는 위기의 연속이다. 어떤 사람은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이 누린 평화의 시대는 전 역사의 10%가 채 못된다고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떤가? 나, 가정, 교회와 국가의 현실은 어떤가? 이구동성으로 위기상황이라고 말한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다.

1. 비상 기도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본문 12절엔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을 것이라고 하셨다. 개인, 가정, 그리고 국가의 위기는 대부분 하나님께 범죄한 까닭이다.

에덴에서 발원된 죄는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했던 이유인 아간의 범죄로까지 연결되고 불순종한 요나로 인하여 배에 탔던 승객들이 위험에 빠졌던 것이다.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비극적인 위기의 도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런 영적인 안일과 범죄가 그들에게 무서운 위기를 몰고 왔던 것이다.

A.D 70년 남부 이태리의 베수비오산의 화산 폭발로 인하여 폼페이시가 완전히 매몰된 사건이 있었다-1834년 영국 작가 리튼이 쓴 "폼페이 최후의 날"은 폼페이의 참상과 시대상을 잘 말해준다. 당시 폼페이는 술집과 창녀집이 번성하였었다.-

창세기 19:24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망시

극복할 수 있다.

본문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겠노라고 하신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기 때문에 사람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 본문 13-14절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와는 살림이 사다. 하나님을 떠나선 마라의 쓴 우물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에 그런 사람에겐 천 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미워하는

위기의 극복

눈물흘리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키셨으며, 렘 29:7에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고 하셨다.

신자는 위기를 맞았을 때 자신을 살피고 회개를 해야한다. 비상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다.

교만은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므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다.

2.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위기를

자에겐 보응하신다고 하셨다(신 7:9-10).

결국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하는 것이 개신교의 대강령이며 대전제이다. 모든 것이 성경의 권위 앞에 복종되어야 한다. 성경의 권위가 상실되고 세속 사상들이 판을 칠 때 정신적 혼란과 위기가 오고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침묵하고, 성경이 말하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자.

결론

예수님은 감람산 마루턱에 앉아 딸같은 시온이라 칭할 만큼 사랑스럽고 화려한 조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위기를 내려다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민족의 어려운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아보자.

마침, 우리 교회가 6월 6일부터 실시하는 시온성대행진은 나, 가정 그리고 이 민족이 위기에서 구원받는 성회이다. 눈물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힘껏 참석합시다.

김준태(목사·4교구·청년2부 지도)

최근의 국내의 정세는 성경이 예언한대로 말세의 징조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민주화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학원과 노동현장에서 연일 데모, 농성, 단식투쟁 등이 전개되고 있으며, 윤리와 도덕관은 허물어질대로 허물어져 인신매매, 부녀자 납치 및 성폭행, 살인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감행되는 어두운 시대로 둔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뿐 아니라 국외에서는 북경의(중국) 살상

장로칼럼 시온성대행진



오 태 희

(장로, 교육위원장 겸 시온성대행진 참모장)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기 위한 결사적인 기도운동"

사태, 소련의 폭발에 의한 인명피해, 민주화와 정의를 외치는 세계인들의 합성으로 온 지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마태복음 24장엔 세상 끝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니... 민족

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마 24:6-8)고 경고된바 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온성대행진」은 급박한 시대에 처한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는 세계교회를 위해서 우리 충현의 성도들이 한목소리로 울부짖으

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기 위한 결사적인 기도의 운동이다.

약속된 가나안 땅은 복음화된 통일조국임을 감안할 때,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기도 자체도 단절된 남북간의 관계를 정상회복차원으로 변혁하자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개신이 필요하고, 또 민족복음화를 앞당기기 위하여는 거듭난 인간으로서 성숙한 신자로 변화되고, 변화

된 믿음의 바탕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이 되도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밖에 없는 결론이 나온다.

이제 온성도가 새벽기도회에 구름떼처럼 몰려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간구와 결심과, 감사의 기도가 넘치기를 바란다.

주간 1트럭분의 의류 및 재봉틀을 전달했다.

화급한 상황이어서 전화로 성도들에게 구제요청을 했는데 예상 밖의 구호품(의류)이 쇄도해 담당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풍성했다.

윤에스더 특상 「피아노」 본교회에 기증

본교회 교회학교 고등부 1학년인 윤에스더 양(윤영탁목사 장녀)이 전국 피아노 콩쿨에서 특상으로 받은 피아노 1대(삼익)를 지난 주간 교회에 기증했다.



▲ 윤에스더양이 특상으로 받은 피아노 1대를 이종윤유임목사께 전달하고 있다.

인사이드

본교회 5월 정기당회는 다음과 같이 인사이동을 결정 발표했다.

☆ 교역자 인사이드

- 윤영탁목사(장년3부 지도)
- 손영균목사(협동목사, 동시통역영어담당)
- 이세열목사(교구위원회 지도)
- 이양우목사(청년2부 지도)
- 김준태목사(세계선교회 지도)
- 이조웅전도사(새신자부 지도)
- 김주아전도사(소년부 부지도)
- 김성식전도사(성경연구원 부지도)

(1989년 6월 4일부)

☆ 예배위원회

- 찬양대원 추가임명
- 박찬희(임마누엘), 이여옥, 이은혜,
- 김선아, 김광해, 구혜옥, 심관섭, 박종

구(할렐루야), 이영숙(아멘) 이상 6월1일부.

☆ 교육위원회

- 교사 추가임명
- (영아부) 장태숙, 오경애, 오경숙, 허숙, 박명란, (유치부) 이미리, 김현주, 이은하, (중등부) 이태근, 이승준, 이동성, 이용현, 변은순, 신용한, 이정애, 신옥순, 손옥순, 문미령, (장년2부) 박은숙, (장년3부) 심재을, 이영숙, 조향숙, 반정현, 오덕희, 박종민, 변성옥, 이청자, 필기복, 김복임, 조귀남, 남수현, 조희순, 김순실, 박선자, 이근수, 유분홍, 나천애, (직전부) 김보경, (세례부) 허경화, (탁아부) 손경순.

(6월1일부)

개포동 화재현장 본교회에서 의류전달

갑자가 화재가 난 개포동지역 주민들을 위해 본교회는 긴급하게 구제활동을 펴 지난



▲ 구제위원회에서 개포동 화재현장에 구호품을 전달

시온 성대행진 새벽기도회 주력행진대 참석일정

6월12일(월) 평양(6교구), 청진(12교구)
6월13일(화) 선천(7교구), 함흥(11교구)
6월14일(수) 개성(1교구), 온성(14교구)
6월15일(목) 해주(2교구), 회령(13교구)
6월16일(금) 사리원(3교구), 원산(10교구)
6월17일(토) 황주(4교구), 중강진(9교구)
6월18일(주일) 진남포(5교구), 신의주(8교구)
6월19일(월) 평양(6교구), 청진(12교구)
6월20일(화) 선천(7교구), 함흥(11교구)

"눈물의 성회"에 모두 참석을 6월12일~14일 오후7시

시온성대행진 기간중인 12일(월)~14일(수)까지는 눈물의 성회가 저녁마다 진행된다.

첫날은 "거듭난 인간" 주제로 대구제일교회 이상근목사가, 둘째날은 "성숙한 신자" 주제로 김명혁목사, 그리고 셋째날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주제로 이한빈

시온성대행진 새벽기도회 나는 이렇게 참석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충현교회를 축복해주셔서 날로 새롭게 부흥성장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년 홍해작전과 여리고작전을 통하여 영적 각성과 예수께 헌신을 다짐한 저는 이번 시온성 대행진에 참여케 됨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윤 위임목사의 「시온성대행진」 선포를 듣고 난 후 저는 어떻게 하면 새벽기도회에 정한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야 집사람과 함께 택시를 타고 오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협력구역에 맡은 저로서는 이곳 고덕구역(11교구 제1지역)의 차가 없는 성도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15일간 봉고차 임대 구역식구들 20여명 싣고 교회로

기도하던 중에 "믿음대로 되리라"는 확신이 생겼고, 바로 옆집의 봉고차 운전기사가 10만원만 내면 15일간 새벽기도회 시간에 맞춰 차량을 운행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도 시온성대행진 출발 하루전인 5일에 전격적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식구들에게 차량이 마련되었으니 염려하지 말고,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자고 했더니 예상 외로 20여명이 이용케 되었습니다.

고덕지역에서 교회를 가려면 버스를 두번 이상 갈아타는 번거로움과 약 50분이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은혜 중에 모두들 한 차에 타고 편안히 새벽기도회에 참석케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우리들이 탄 봉고차가 교회당에 도착하면 새벽4시30분, 기도회 좌석도 우리가 원하는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예배시작 30분전.

이제 봉고차 옆에 「시온성 대행진」 프랑카드를 붙이고 오늘도 갈급한 심정으로 교회로 교회로 달려간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이 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우리 구역식구들에게도 넘치게 주옵소서. 아멘.

최 명 환(안수집사, 고덕1,2,3,4협력구역장)

시온성대행진 총진군의 날 6월18일 주일 새벽5시

시온성대행진 본부는 오는 6월18일 주일 새벽예배를 "총진군의 날"로 결정하고 충현의 전성도가 참석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모든 가족들은 총동원되며, 1세대 1명 초청운동, 구역별 잃은양(장기결석자, 쉬고있는 자) 찾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시온성대행진 봉사조 편성

「시온성대행진」기간중 새벽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간의 교제를 위하여 「충현차」를 제공하고 있다. 봉사담당은 에스더여전도회 각 지회당 5명씩.

날	짜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교구(지회)	7	8	9	10	11	12	13	14	마리아연합회	

▲ 봉사방법: 새벽 4시30분까지 시온성대행진 본부에 모여 설명을 듣고 충현차를 준비하고 새벽기도회 후 성도들의 차를 잘 마실 수 있도록 봉사하고 뒷정리를 한다.

충현 조찬

새벽기도회 후 직장 출근자를 위해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장로가 각각 강의하게 된다.
전교인들의 참석을 행진본부측은 바라고 있다.

- ① 봉사담당: 권사회(대표/이옥녀, 백영희 권사)
- ② 봉사날짜: 6일부터 20일까지(11, 18



▲ 새벽기도회 끝난 후 귀가하는 성도들에게 찬송 물려주는 대학부 회원들

6월 16일(금) 전교인 금식일

시온성대행진 본부는 오는 6월 16일(금) 해있는 하루동안 금식일을 선포했다.

충현교회 전성도는 교회갱신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금식기도에 모두 동참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날 금식한 정성은 6월18일 주일에배시예헌금을 해주되 별도로 마련된 헌금봉투에 소속행진대를 표시하여 헌금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또 금식미를 위한 성미함은 교회 뜰 앞에

- 일 주일아침은 제외) 매일 10명씩
- ③ 봉사방법: 새벽기도회후 식당에서 배식 및 필요한 일 봉사. 식사후 뒷정리.

택시운전기사에게 검과 전도지 배포

- ① 봉사담당: 디모테전도회 각지회 당

날	짜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교구(지회)	7	8	9	10	11	12	13	14	바울연합회	

- 7명씩.
- ② 봉사방법: 새벽4시20분까지 시온성대행진본부에 모여 설명을 듣고 준비하여 정한 장소에 봉사함. 새벽기도회 설교시작 전까지 봉사한다.

숙소

남자: 새가정부실 이용

여자: 베들레헴실(탁아부실), 유치부실

텔 서울에서 주최하는 회사 발전을 위한 전사원 특별기도회에 강사로 초청되어 "크리스찬의 직업관"에 대한 특강을 할 예정이다.

성경말씀 통해 더욱 새로워진 교회학교 장년3부

교회학교 장년3부(부장 마성락장로)는 말씀을 통해 더욱 새로워 지기를 원하면서 장년3부에 해당되는 믿음의 식구들을 초대하고 있다.

만 50세부터 70세까지의 남·여 성도로서 구성된 장년3부는 매주일 3부예배 후 12시30분부터 오후1시40분까지 소석관 307호에서 집회를 갖고 있으며, 지도교역자는 윤영탁 목사이다.

해당 연령층은 참석을 바라고 있으며, 반배정도 교구별 및 남·여교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신앙인을 위한 의학강좌 11일, 의료전도회 주관으로

충현교회 의료전도회(회장 손철집사)는 6월11일(주일) 오후1시 베다니홀에서 신앙인을 위한 의학강좌를 개최한다.

「의료와 선교」주제로 개최되는 동 의학강좌의 강사는 이명수교수(실로암 안과병원 원장)이다.

미화부 직원 등에 근무복 기증 마리아2지회에서

마리아2지회(회장/김역구집사)는 지난주 간 본교회 미화부, 사찰, 영선부직원 전원에게 근무복 1벌씩 기증했다.

충현프리즘

☆ 시온성대행진 첫날

남들이 모두 곤히 잠자는 시간인 새벽3시30분부터 충현교회 본당은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시온성대행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참모들이 속속 도착하고, 봉사요원들이 발걸음을 재촉한다.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들은 "시온성 대행진"어깨띠를 걸고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을 밝은 얼굴과 웃음으로 맞이한다.

5시 정각 4천여 명의 성도들이

성전 가득히 찼다.

새벽기도회 주강사인 이종윤 위임목사가 창세기에 나타난 순례자 아브라함에 대하여 약 30분 동안 설교했다.

설교 이후 참석한 성도들의 통성기도가 있은 후 주기도문으로 폐회하니 새벽 6시.

교회 본당 앞뜰에 마련된 음료 대에는 생수 및 생강차가 귀가하는 성도들에게 제공되고, 본당 계단 위에서는 대학·청년회원들의 찬송이 새벽공기를 타고 하늘 높이 떠간다.

☆ 봉사요원들의 헌신적인 활동

차량관리부 일꾼들은 시간맞추어 쏟아져 들어오는 각종 차량들을 안내하고 정리하느라 진땀을 뻐다. 성도들이 친히 물고온 승용차만 560여 대, 그리고 택시 및 기타 교통수단을 모두 합치면 8백여 대가 새벽기도회 길을 꽉 메운다.

택시기사들에게는 검과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성도들에게는 생수와, 충현차로 봉사한다.

또 직장인들을 위해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약 250여 명의 직장 교우들이 이용한다. 아침식사를 위하여 매일 10여 명의 권사들이 식당에서 봉사한다.

☆ 참모회의는 계속

시온성대행진 기간중, 모든 참모들은 새벽기도회가 끝나자마자 참모회의실에서 그날그날 상황결과 보고와 미진사항, 보완될 사항들을 점검하며, 확인하고, 통성기도로 이번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점자 복사기 설치 바자회 수익금으로

지난해(88년) 개최된 제1회 장애자를 위한 바자회에서 수익된 기금으로 지난주간 점자 복사기를 구입하여 본교회 도서관에 설치했다.

미화 약 14,000불인 동 점자복사기는 국내에 2대 밖에 없는 희귀한 기기이다.

본교회 열쇠고리 제작

충천교회 상징마크와 충천교회 본당 전경이 부각된 열쇠고리가 제작되었다.

동 열쇠고리는 1개에 500원씩 테프 보급소에서 평일에 판매되는데 선물용으로 디자인도 이색적이다.



▲ 본교회 상징 열쇠고리

남전도회 이모저모 산호교회와 바울 13지회

바울남전도회 13지회는 지난달 월례회의에서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용호리 소재 산호교회(채철석목사 시무)를 지원교회로 결정하고 당회의 승인을 얻었다.

우리 임원들은 새로 지원처로 결정된 「산호교회」를 방문기로 하고, 지난 5월25일 오전9시 현지로 출발했다.

복잡하고 매연과 공해로 오염된 서울 시내를 빠져나가 축령산 기슭과 북한강변을 사이에 낀 경춘국도는 어제 내린 비로 산뜻했다.

산은 한껏 5월의 푸름으로 풍만해졌고, 창은 아침햇살에 늦봄 향기의 바람결에 황금빛 잔파로 부서져 눈을 부시게 만들었다.

춘천시내를 지나 청평, 오음을 지나 간동 용호리에 도착한 때는 12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채철석목사의 안내로 예배후 우리가 가지고 간 구호품과 지원금을 전달했다.

산호교회는 30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으며, 금년 3월25일에 새예배당 헌당 및 송민

석, 김두봉 씨의 장로장립예배를 드린바 있다. 현재 장년 40여 명의 교세이다.

찾아간 우리에게 융숭한 대접을 해준 송장로님 가정에 이 난을 빌어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구호품, 지원금, 건축헌금 전달"

특히 송장로님 모친은 새예배당 건축당시 관절염의 어려운 상황중에서도 매일같이 점심을 친히 머리에 이고 날랐는데, 한번은

꿈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 은도끼로 자기의 양무릎을 쳐서 피가 흘러 깨어보니 아팠던 무릎이 깨끗이 완쾌됨을 간증하기도 했다.

산호교회를 시무하는 채철석목사는 서울에서 약국을 경영했었는데, 하루는 약국에 강도가 들어와 돈을 요구하길래 이에 불응하자 칼로 찔림을 당하고 의식이 불명되었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것이다.

그 이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신학교육을 마친후 목사가 되어 이곳에 부임당시 두 트럭분의 의약품을 싣고와서 복음사역을 감당했다는 간증도 있다.

이제 지원교회가 된 산호교회를 위하여 우리 바울 13지회는 계속 기도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뒤에서 여러 모양으로 협력해 주신 윤용규목사와, 장혜순전도사, 그리고 교구내 장로 및 권사들, 또한 산호교회 건축헌금을 내주신 교구 산하 한나, 에스더, 마리아 여전도회, 구호품 모집에 협조해 주신 각 구역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한 일 연(집사, 바울남전도회 13지회 회장)

구역예배를 위한 충천다락방

1989년 6월 16일(금)

교구위원회 제공

제24과 아하와강가의 금식성회

성경: 에스라 8:21-31

요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스 8:23)

찬송: 339, 487장

이방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고향땅 시온성을 향하여 출발하는 대행진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성회를 가지게 되었다. 많은 백성과 소유를 이끌고 도적들과 원수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는 길을 여러날 가려면 충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였다. 에스라는 왕의 군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하며 금식을 선포하였던 것이다.

1.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한 성회였다.

에스라는 아하와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였다. 일찌기 아합왕은 엘리야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선고를 받을 때 그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므로 그 재앙이 연기되었고, 불의한 나라 니느웨성도 금식하고 회개하니 멸망을 피할 수 있었다(왕상 21:27-29, 욥 3:1-10). 자신과 동족,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불의한 관계와 교제는 끊고 겸비한 회개와 금식을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것이다. 이같은 회개와 겸비함이 없는 금식은 하나님이 알아주지 아니하시는 금식이요 헛된 기도이다.

2. 하나님께 간구한 성회였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평안한 길을 위하여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금식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아니라면 인간중심의 형식적이고 위선적 금식에 불과한 것이다. 세리의 금식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한 금식에 지나지 않았다

(눅 18:9-14). 에스더의 금식은 위기에 처한 민족을 위한 금식이었고(에 4:3, 16) 안디옥교회의 금식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명 감당하기 위한 금식이었다. 그 결과 저들은 비전과 사명을 받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다(행 13:2, 3). 우리의 금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으로 하나님께 열납되어야 한다.

3.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성회였다.

아하와강가에서의 이스라엘의 금식성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성회였다.

시온성까지의 저들의 대행진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받아 평탄한 길이었다. 대적들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아 낙달만에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후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이루어졌다. 미스바에서의 금식성회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블레셋 원수를 격파하고 승리하여 에벤에셀의 은혜를 체험하였다(삼상 7:5-14). 이번 시온성대행진 기간의 우리 충천 성도들의 회개하며 겸비한 자세로 간구와 금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앞길이 승리와 성공으로 활짝 열려지기를 소원한다.

함께 생각합시다.

1. 헛된 금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떠한 모습입니까?(사 58:3-12)
2.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마 6:16-18)
3. 우리의 금식과 간구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을 바라야 합니까?(요엘 2:12-20)

공동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아하와강가에서 에스라와 이스라엘의 금식과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베루사 평안과 성공의 응답을 주신 것 같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를 위하여 주께서 주신 큰 과업을 금식과 기도로 감당코자 하는 우리의 시온성대행진에 기적의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와 민족이 갱신되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귀한 책임을 감당하는 비전과 사명감 그리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